동남아시아연구 25권 1호(2015) : 31～84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나 희 량**

Ⅰ. 서 론

아세안은 역내경제통합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말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1] 아세안은 이미 1993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의 형성 및 역내국 간 공동실효특혜관세(Common

* 본 연구는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NRF-2009-362-B00016).

** 부경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heeryang@pknu.ac.kr

1) 아세안경제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는 정치·안보 공동체(ASEAN Political-Security Community), 사회·문화 공동체(ASEAN Socio-Cultural Community)로 구성되어 있는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의 세 가지 기둥(pillar) 중 하나이다. 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아세안 역내차원의 경제협력의 이미 1997년 12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아세안 비전 2020'에서 시작되었고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채택된 '아세안협력선언II'에서는 아세안공동체의 한축으로서 아세안경제공동체가 공식화되었다. 그리고 2007년 1월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12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 창설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는데 합의하였고 아세안경제공동체의 목표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세안경제장관회의의 논의를 거쳐 2007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아세안경제공동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연원 및 진행상황은 ASEAN Secretariat 2008, Sanchita 2012, Sanchtia *et all*. 2013a, Sanchtia *et all*. 2013b, Siow 2013을 참조할 것.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CEPT)의 발효를 통해 실제적인 경제통합 노력을 경주해 왔다(박번순 2013, 박번순·김경훈 2012, 김완중 2009). 역내의 경제통합이 진전될수록 총 무역에서 차지하는 역내무역이 증가되는 것은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역내경제통합의 수준 또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역내무역비중(intra-regional trade share)이 많이 활용되는데,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2012년 22.1%로 MERCOSUR의 13.2% 보다는 높지만 EU 59.1%, NAFTA 39.3% 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지역경제통합의 성격 및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경제통합이 이미 오랫동안 상당히 진전되어온 EU 및 NAFTA 보다는 낮은 반면 내수 지향적 무역정책을 실시해 온 MERCOSUR보다는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세안은 역내경제 통합을 위해 기존 AFTA를 더욱 심화하는 동시에 TPP 및 RCEP 협상 참여를 통해 역내이익을 극대화하고 아세안 중심성(ASEAN Centrality)을 고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은 높은 역외의존도, 세계시장에서의 역내국가 간 경쟁 심화, 낮은 수준의 파편화된 무역자유화[2] 등으로 인해 역내무역의 외연적 확대에 조응하는 역내무역의 질적, 내재적 심화가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Austria 201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세안은 실제적인 경제통합체로서의 아세안경제공동체의 구축을 위해 '단일한 시장과 생산기반(single market and production base)', '경쟁력을 갖춘 경제블록(competitive economic region)', '균등한 경제발전(equitable economic development)', '글로

2) 예를 들면 아세안이 체결한 5개 FTA(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 EU와 체결한 FTA 보다 시장개방 수준이 낮을 뿐만 아니라 협정마다 양허내용도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벌 경제와의 통합(integration into the global economy)' 등 4대 목표를 설정하고 각 부문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 정책들을 수립,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역내경제통합의 노력의 결과로 아세안의 역내무역은 지난 30여 년 동안 20배(1980년 234.6억 달러에서 2012년 5,152.7억 달러) 이상 증가하였고 연평균증가율도 10% 이상을 기록하는 등 EU, NAFTA에 비해 빠른 외연적 성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가 주도하는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노력 및 역내무역의 외연적 성장이 실제적인 역내경제통합의 심화를 가져왔는지는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제통합체로서의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은 그 경제적 후생의 증가 등의 실제적인 의미를 상당부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역내무역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내무역의 차원에서의 아세안경제통합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3)]

보다 구체적으로는 아세안의 역내무역구조의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세안의 역내무역의 증가와 진전이 실제적으로 내재적인 경제통합의 강화를 나타내는 역내무역의 지역편향성 및 내향성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주요 경제통합체인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아세안 역내무역의 특성 및 이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 역내무역의 양적, 질적 확대 및 심화를 통한 경제통합의 진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경제공동체 형성을 앞두고 역내무역 활성화와 역내무역 확대 및 질적 심화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3) 아세안 전체 및 개별국가 차원의 역내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동남아지식정보센터에서 발간한(2014.8) 정책보고서(No.2)『2015년 아세안공동체 건설 현황과 전망』제 3장 "아세안경제공동체 건설과 아세안 역내무역분야 현황과 시사점"(pp47-85)을 참조할 것.

바와 같이 아세안은 대내적으로는 2015년 경제공동체 형성을 앞두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변화되는 국제통상질서에 대응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아세안의 역내무역에 대한 분석 및 역내무역의 질적 심화를 통한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는 시의적으로도 중요할 것이다.

본 논문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다음 장에서는 아세안 역내경제통합 관련 기존연구를 살펴보고 역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위한 데이터 및 분석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3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아세안의 역내무역규모,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 등을 품목별로 산출하고 주요 경제통합체인 EU, NAFTA, MERCOSUR의 지수와 비교함으로써 아세안의 역내무역의 구조, 특성 및 변화 등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3장의 결과를 시계열분석을 통해 확인, 재평가하고 그 분석결과가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어떠한 의미와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위의 논의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들을 제시한다.

Ⅱ. 기존연구 및 데이터

1. 기존연구

아세안 경제통합 및 역내무역에 대한 기존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상당 수준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아세안의 경제통합의 전개와 현황, 역내무역에 대한 분석 등 다수의 연구들이 수행되어왔고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과정 및 현황 그리고 역내무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하다(이충

열 2014, 박번순 2013, 김준협 2011, 원용걸 2010, 2002, 1996, 권율 외 2003, 유재원 1996, 양평섭 1994, Chirathivat 1991, James 1986, DeRosa 1986, Langhammer 1985, Naya & Hiemenz 1985, Lutkenhorst 1984). 또한 2005년 ASEAN Economic Bulletin(22권 1호)에 아세안 경제통합을 위한 각 국가들의 통상정책에 대한 논문들이 특집호로 게재된 바 있다(Sally & Sen, 동남아시아 일반; Soesastro & Basri, 인도네시아; Athukorala, 말레이시아; Tongzon, 필리핀; Liang, 싱가포르; Talerngsri & Vonkhorporn, 태국; Vo, 베트남).

특히 최근에는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아세안경제통합에 대한 진단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충열 2014, Linda 2014, 박번순 2013, Chia 2013, Das *et al*. 2013a, 2013b, Pomfret 2013, Podok & Thoumrungroje 2013, Basri 2013, Noland 2013, 박번순·김경훈 2012, Austria 2012, Das 2012). 또한 아세안경제통합의 경제적 후생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서 비관세철폐 및 무역원활화를 통한 경제적 후생의 증대 가능성에 대한 연구(나희량 2014), 아세안 금융시장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충열 2011), 중력모델의 활용 등을 통한 아세안 역내무역의 현황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Kubo 2012, Warr 2011, Nguyen 2009, 김완중 2009, Sen & Srivastava 2009, Widodo 2008, Koh 2004)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아세안경제공동체 형성의 경제적 후생증가 효과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 예로 일반균형분석을 통해 관세가 철폐되고 비관세장벽이 모두 해소될 경우 아세안의 GDP가 평균 5.3% 증가하는 등 그 경제적 후생증가 효과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etri, Plummer, and Zhai 2012). 더 나아가 아세안 경제통합과 연관된 주제로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아세안 경제의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 및 타 지역경제 또는 세계경제와의 상호관계,

그리고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확장의 동남아시아 경제에 대한 영향과 그 반작용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역내 경제통합의 효과뿐만 아니라 중-아세안, 한-아세안 FTA 등 역외 국가 및 지역과의 경제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연구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김준협 2011, 원용걸 2010, 2002, 나희량, 2009, 고종환 2007, 권율 2006, 박인원 1998).

이처럼 아세안의 경제통합에 대한 기존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미 상당 수준 축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과 관련된 역내경제통합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세안 역내무역에 대한 연구는 아세안 경제통합의 일부분으로서 일반적이고 개괄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측면이 많고 그 서술된 내용들에 있어서도 아세안 역내무역의 구조, 변화과정 및 특성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EU, NAFTA, MERCOSUR 등 주요 경제통합체와의 비교분석도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아세안 역내무역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부분적, 단편적, 일회적 측면의 분석의 성격이 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아세안 역내무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아세안 역내무역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앞두고 있는 아세안에 있어 역내무역의 외형적 발전에 조응하는 역내무역의 내재적 발전과 심화, 더 나아가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자 한다.

2. 데이터

아세안 역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위한 자료로는 동일한 기준에 따

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일본의 경제통상산업연구소(RIETI,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가 제공하는 무역산업 DB인 TID(Trade Industry Data Base)를 활용하였다. RIETI-TID는 국제적 분업화를 반영하기 위한 무역통계 DB로 역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예로 현재 RIETI-TID는 동아시아경제통합을 분석하기 위해 아세안을 포함한 아시아 14개국, 북미 3개국, 유럽 30개국, 남미 10개국, 대양주 2개국 등 총 59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무역통계를 CIF 기준으로 제공하고 있다. RIETI-TID는 UN Comtrade의 표준국제무역분류(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SITC)의 통계를 BEC(Broad Economic Categories)와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를 고려하여 상품을 원료, 중간재, 최종재의 세 단계로 분류하고 더 나아가 중간재는 가공재와 부품으로, 최종재는 자본재와 소비재로 세분하여 원료를 포함 총 다섯 단계로 분류세분하고 있다.

원료(primary goods)는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와 가공 식료품으로 사용되는 원료(일반적으로 직접 소비되는 식료품 제외) 등의 제품을 의미하는데 원료는 주로 가공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중간재로 변화된다고 할 수 있다. 중간재(intermediate goods)는 원료 등을 가공, 처리하여 생산된 최종재에 사용되기 위한 제품을 의미하는데 중간재는 BEC에 기초하여 가공재(proccessed goods) 및 부품(parts & components)으로 나누어진다. 가공재와 제품은 각각 산업별로 상이한 제조과정과 비중을 가진다. 일반적으로 가공재는 원자재를 1차 가공 후 2차 재가공을 위한 중간단계에 투입되는 제품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의류제품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실과 옷감, 자동차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강판 등을 가공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부품은 그 자체로 완성품의 성격을 띠지만 완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제품을 말하는데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타이어, 자동차 유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최종재(final goods)는 생산자가 생산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소비자와 정부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제품을 의미하며 전자는 자본재(capital goods), 후자는 소비재(consumption goods)로 구분할 수 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역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위해 우선 RIETI-TID에서 추출한 총 무역액, 원료, 중간재(가공재 및 부품), 최종재(자본재 및 소비재) 등 총계 및 품목 분류에 따른 총 33년간(1980~2012년)의 역내무역통계를 활용하여 역내무역규모,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 등을 산출한다. 이를 통해 아세안 역내무역의 추이와 특성 그리고 그 변화 원인 및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EU, NAFTA, MERCOSUR의 역내무역에 대해 분석하고 아세안 역내무역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먼저 역내무역비중(intra-regional trade share)은 특정 경제권(경제통합체)의 전체 무역에서 특정 경제권(경제통합체)의 역내무역이 얼마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내무역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활용된다. 역내무역비중은 아래의 식 (1)과 같이 산출된다.

역내무역비중(X) = A/B 또는 역내무역비중(X) = (A/B)×100 (%) (1)
A = 특정 경제권(경제통합체)의 역내수출 + 역내수입
B = 특정 경제권(경제통합체)의 대 세계수출 + 대 세계수입

다음으로 역내무역의 역내편향성의 정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역내무역집중도지수(intra-regional trade intensity index)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해당 역내의 전체 무역이 세계 무역에서 얼마정도를 차지하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무역에 대한 상대적 비교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이다. 다시 말해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위에서 설명한 역내무역비중에 비해서 역내무역의 편향성을 보다 객관적이고 엄밀하게 파악할 수 지표로 평가된다.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아래의 식 (2)와 같이 산출되며 그 결과 값이 1보다 크면 클수록 역내 편향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으며, 1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반대로 역외편향성이 강화된다고 할 수 있다.

$$\text{역내무역집중도지수}(Y) = (A/B)/(B/C) = X/(B/C) \quad (2)$$

X = A/B (역내무역비중)

C = 세계 총수출 + 총수입

또한 역내무역의 역내지향성의 정도에 대한 분석을 위해 지역무역내향성지수(regional trade introversion index)를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위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의 경우 이론적으로 시계열 상에서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역외무역집중도지수가 동일한 방향으로 나타나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증가를 역내무역의 편향성을 나타내는 충분조건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의 보완을 위해 특정 경제권(경제통합체) 무역의 역내외 편향을 동시에 고려하여 역내지향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인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통해 역내지향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아래의 식 (3)과 같이 산출되며 결과 값이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지리적으로 중립적이고, 0보다 크면 클수록 역내 지향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text{지역무역내향성지수}(Z) = (Ri-Re)/(Ri+Re) \quad (3)$$

$Ri = (A/B)/(O/T)$

R_e = [1-(A/B)]/[1-(O/T)]
O = 특정 경제권(경제통합체)의 역외 수출 + 역외 수입
T = 역외국의 총수출 + 총수입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세안 역내무역과 여타 경제통합체 역내무역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아세안, EU, NAFTA, MERCOSUR의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이의 변화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아세안 역내무역과 여타 경제통합체 역내무역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해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와 EU, NAFTA, MERCOSUR의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상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아세안 역내무역의 각 지수들이 여타 경제통합체들의 지수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과 EU의 역내무역비중의 상관계수가 부(−)의 값을 가진다면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EU의 역내무역비중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하거나 또는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감소하고 있지만 EU의 역내무역비중은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아세안 역내무역과 EU, NAFTA, MERCOSUR 역내무역 간의 추세와 관련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세안 및 EU, NAFTA, MERCOSUR의 역내무역비중과 역내무역집중도지수 및 역내무역비중과 지역무역내향성지수의 상관계수를 각각 산출해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역내무역비중의 증가 또는 감소가 역내무역집중도 및 지역무역내향성의 증가 및 감소와 어떠한 상관성을 갖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역내무역비중은 역내무역집중도 및 지역무역내향성과 정(+)의 상관

계수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볼 수 있고 아세안을 비롯한 경제통합체들의 역내무역이 이와 부합하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아세안 역내무역과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

1. 역내무역비중: 총무역

본 장에서는 AFTA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주요 경제통합체인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아세안 역내무역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우선 <표1>은 아세안, EU, NAFTA, MERCOSUR의 역내무역규모의 변화추이를 정리한 것이다. 동 기간(1980~2012년) 아세안, EU, NAFTA, MERCOSUR의 역내무역은 각각 22.0배, 6.2배, 10.3배, 35.6배 증가하였고, 연평균증가율로 보면 각각 10.1%, 5.9%, 7.6%, 11.8% 증가하였다. 아세안의 역내무역은 선진국들의 경제통합체라고 할 수 있는 EU, NAFTA에 비해서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제통합체인 MERCOSUR에 비해서는 약간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1> 역내무역규모 변화추이

	역내무역규모(십억 달러)		배수 (2012/1980)	연평균증가율 (1980~2012)
	1980	2012		
아세안	23.5	515.3	22.0	10.1
EU	973.6	6,058.2	6.2	5.9
NAFTA	196.2	2,019.7	10.3	7.6
MERCOSUR	2.7	96.0	36.6	11.8

또한 아세안 역내무역비중은 20% 내외로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EU 60% 내외의 1/3, NAFTA 40% 내외의 1/2 수준이며 MERCOSUR의 15% 내외에 비해서 1.5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아세안 역내무역은 2012년 5,152.7억 달러로 아세안 총 무역규모의 22.1%를 기록하였다. EU와 NAFTA의 역내무역은 각각 6조 581.9억 달러, 2조 197.2억 달러로 총 무역규모의 59.1%, 39.3%를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지역 내 경제통합이 심화될수록 역내국간의 무역이 역외국과의 무역을 대체한다고 가정할 때 아세안의 경제통합수준은 EU와 NAFTA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아세안 역내무역비중은 1980년 17.7%에서 2012년 22.1%로 완만하지만 꾸준히 상승한 반면 EU의 역내무역비중은 1992년 68.4%로 정점에 이른 후 2012년 59.1%로, NAFTA는 2000년 45.1%로 정점에 이른 후 2012년 39.3%로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MERCOSUR의 경우에도 1998년 21.3%로 정점에 이른 후 2012년 13.2%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EU, NAFTA, MERCOSUR가 역내무역의 증가보다 역외국과의 무역비중이 상대적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상품군 별로 보면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료의 경우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2012년 17.5%로 EU의 35.7%, NAFTA의 42.7%에 비해 낮고 MERCOSUR의 4.3%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30% 중반 아래였던 NAFTA의 원료 역내무역비중은 1998년 40%대를 넘어서는 동시에 EU를 앞서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NAFTA 3개국 모두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원유를 생산하고 있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1차 상품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1988년 46.0%로 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0년대 이후 에는 30% 중후반에서 머무르고 있다. 아세안의 경우에도 원료의 역내무역비중은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이는 아세안의 급격한 산업화, 공업화로 인해 원료의 역외의존도가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MERCOSUR의 경우 1995년 실제적인 관세철폐 및 상호무역개방이 시행됨으로써 이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원료의 역내무역비중은 빠르게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 후반 이후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재 4개 경제공동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간재의 경우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그림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년 25.1%로 EU의 64.1%, NAFTA의 41.1%에 비해 낮고 MERCOSUR의 14.2%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992년 71.6%로 고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NAFTA의 경우에도 1999년 48.8%로 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아세안은 1980년 19.0%를 시작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역내 분업화의 진전에 따라 역내 중간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MERCOSUR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관세철폐 및 상호무역개방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중간재의 역내무역비중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비중 면에서도 15% 내외로 4개 경제공동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중간재 중 가공재의 경우 <그림4>와 같이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2012년 27.0%로 EU의 64.9%, NAFTA의 41.5%에 비해 낮고 MERCOSUR의 13.1%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992년 72.5%로 고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NAFTA의 경우에는 2002년 48.8%로 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아세안은 1980년 20.7%를 시작으로 1995년 18.6%까지 하락하였으나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오는 모

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AFTA의 형성에 따른 역내자유무역의 본격화 및 역내 분업화의 진전에 따라 역내 가공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품에 비해 가공재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높다는 면에서 가공재 역내무역비중의 증가가 보다 확연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MERCOSUR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관세철폐 및 상호무역개방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중간재의 역내무역비중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 비중도 15% 내외로 4개 경제공동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품의 경우 <그림5>와 같이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2012년 21.9%로 EU의 62.4%, NAFTA의 40.5%에 비해 낮고 MERCOSUR의 17.9%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60% 후반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NAFTA의 경우에는 2002년 47.0%로 고점을 기록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은 2002년 28.5%로 고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이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공재와는 달리 부품의 경우 상대적으로 역외 수요가 증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품은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가공재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가공재 역내무역비중의 증가와는 대비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MERCOSUR의 경우 2001년 10.1%로 저점을 기록한 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4개 경제공동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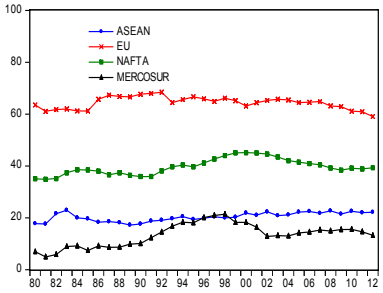
최종재의 경우 <그림6>과 같이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2012년 17.9%로 EU의 59.6%, NAFTA의 36.1%, MERCOSUR의 23.2%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992년 69.4%로 고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NAFTA의 경우에는 2000년 42.8%로 고점을 기록한 후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아세안은 1980년 10.4%를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꾸준히 이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세안의 역내의 분업화가 진행됨에 따른 역내 최종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MERCOSUR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관세철폐 및 상호무역개방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중간재의 역내무역비중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8년 27.1%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2년 13.8%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의 최종재 역내무역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4개 경제통합체를 비교할 경우 아세안의 역내무역에서 중간재와 최종재 역내무역비중의 격차가 큰 역내무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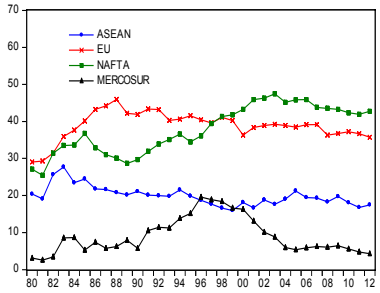
최종재 중 자본재의 경우 <그림7>와 같이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2012년 15.6%로 EU의 52.2%, NAFTA의 34.8%, MERCOSUR의 18.9%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998년 60.0%로 고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NAFTA의 경우에는 2001년 41.6%로 고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아세안은 1980년 7.1%를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완만한 증가세 또는 안정세를 이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세안의 산업화,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역내 자본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MERCOSUR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관세철폐 및 상호무역개방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중간재의 역내무역비중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8년 19.0%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2년 9.4%까지 급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의 자본재 역내무역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4개 경제통합체를 비교할 경우 아세안의 자본재에 대한 역외의존도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재의 경우에도 <그림8>와 같이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2012년 20.4%로 EU의 63.6%, NAFTA의 37.1%, MERCOSUR의 26.1%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다. EU의 경우 1992년 73.1%로 고점을 기록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NAFTA의 경우에는 2000년 44.1%로 고점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아세안은 1980년 13.1%를 시작으로 전반적으로 보면 완만한 증가세 또는 안정세를 이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세안의 경제성장에 따른 구매력 향상으로 역내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MERCOSUR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반 관세철폐 및 상호무역개방에 따른 무역전환효과로 소비재의 역내무역비중도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998년 33.7%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 2003년 16.7%까지 급락했다가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개 경제통합체 중 아세안의 소비재 역내무역비중이 가장 낮은 것은 아세안의 역내무역이 중간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의 역내무역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역내무역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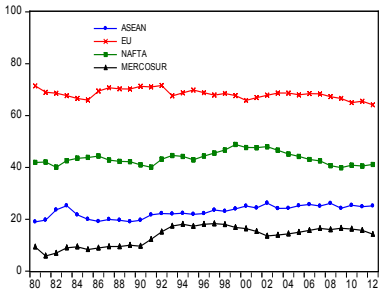
<그림1> 역내무역비중 비교(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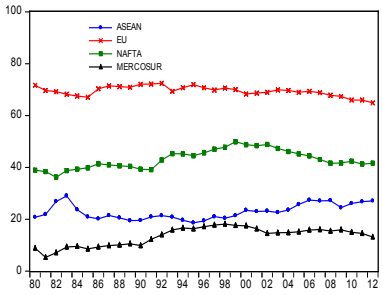
<그림2> 역내무역비중 비교(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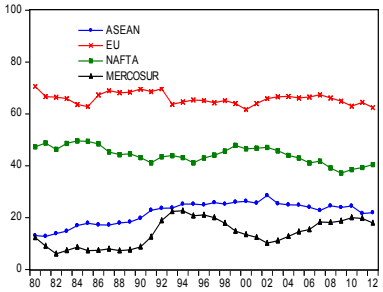
<그림3> 역내무역비중 비교(중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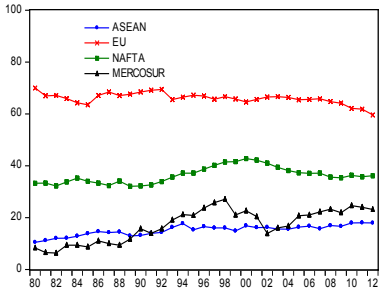
<그림4> 역내무역비중 비교(가공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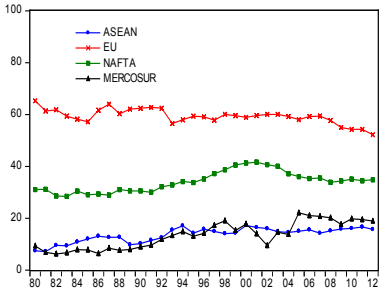
<그림5> 역내무역비중 비교(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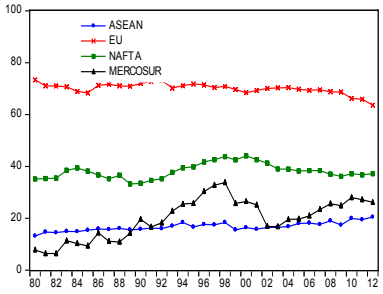
<그림6> 역내무역비중 비교(최종재)



<그림7> 역내무역비중 비교(자본재)



<그림8> 역내무역비중 비교(소비재)



2. 상품군 별 총 역내무역 내 비중

다음으로 <그림9>는 아세안 역내무역에서 원료, 중간재(가공재 및 부품), 최종재(자본재 및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우선 원료, 중간재, 최종재 등 3대 상품군으로 나누어 보면 원료의 역내무역이 총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1.6%에서 10.2%로 대폭 감소하였다. 반면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46.1%에서 2012년 67.4%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최종재가 차지하는 1980년 12.3%에서 1994년 32.9%로 정점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08년 19.9%까지 떨어졌다가 2012년 22.5%로 반등하였다. <그림10>은 원료, 가공재, 부품, 자본재, 소비재 등 5대 상품군으로 분류한 것이다. 가공재와 부품이 총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를 보면 30% 대를 기준으로 상하 대칭적 형태를 보이는데 이는 가공재와 부품이 완성품 생산을 위한 대체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의 경제발전 단계 중 단순부품조립 생산방식이 주효했던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부품의 비중이 가공재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반대로 가공재의 비중이 부품을 능가하고 그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세안이 단순부품조립 생산 및 수출방식에서 벗어나 부가가치창출 측면에서 보다 효과적인 가공재 생산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종재인 자본재와 소비재가 역내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각각 17.0%, 15.9%로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하여 2012년 10.5%, 12.0% 등 10% 초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아세안이 최종재 부문에서는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품군 별 역내무역 비중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EU의 역내무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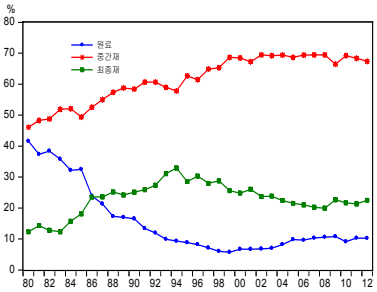
상품군 별로 구분해 보면 <그림11>,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료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10% 이하로 낮은 수준이지만 중간재와 최종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각각 50%대, 40%대로 큰 격차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2012년 원료, 중간재 및 최종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각각 6.9%, 52.4%, 40.7%로 1980년의 8.0%, 50.1%, 41.9%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EU의 경우 원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를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등 역외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큰 반면 중간재 및 최종재의 경우 역내시장 규모가 큰 현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중간재 중 가공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2012년 36.6%, 부품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15.8%로 가공재의 역내무역이 부품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종재 중 자본재와 소비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2012년 각각 12.5%, 28.2%기록하였는데 이를 통해 EU 소비재 역내시장이 아세안에 비해 잘 발달해있음을 알 수 있다.

NAFTA의 경우 <그림13>, <그림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내무역 내 비중은 1980년 20% 대에서 시작하여 1999년 6.0%까지 떨어졌지만 역내에서의 원유 및 천연가스의 생산 및 역내무역의 증가로 2012년 15.7%까지 상승하였다. 중간재와 최종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각각 45%대, 35%대로 EU에 비해서는 낮지만 아세안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간재와 최종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의 격차가 아세안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원료, 중간재 및 최종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각각 15.7%, 46.9%, 37.4%로 1980년의 19.9%, 46.7%, 33.4%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NAFTA의 경우에도 EU와 마찬가지로 산업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소비를 위한 최종재의 역내시장의 규모가 크고 잘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중간재 중 가공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이 2012년 28.9%인 반면 부품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18.0%로 EU와 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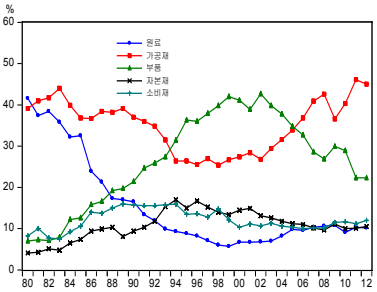
찬가지로 가공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이 부품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본재와 소비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2012년 각각 15.8%, 21.6%를 기록하였는데 아세안에 비해서는 소비재의 역내시장이 잘 발달해있지만 EU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MERCOSUR의 경우 <그림15>, <그림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료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10～20% 수준에서 등락하고 중간재와 최종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각각 40～50%대, 30～40%대에서 불규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중간재 및 최종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EU 및 NAFTA에 비해서는 낮고 최종재의 경우는 아세안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중간재와 최종재의 역내무역비중 내 비중의 격차는 아세안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12년 원료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10.4%로 1980년의 15.0%에 비해 하락하였고 중간재 및 최종재의 경우 2012년 각각 46.6%, 43.0%로 1980년 53.1%, 31.9%에 비해 중간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하락하고 최종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상승하였다. 이는 MERCOSUR의 경우 최종재의 역내시장이 아세안에 비해 지속적으로 발달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가공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이 2012년 33.1%인 반면 부품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13.5%로 EU와 마찬가지로 가공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이 부품에 비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종재 중 자본재와 소비재의 역내무역 내 비중은 2012년 각각 14.3%, 28.7%를 기록하였는데 아세안에 비해서는 소비재의 역내시장이 발달해있지만 EU에 비해서는 낮고 NAFTA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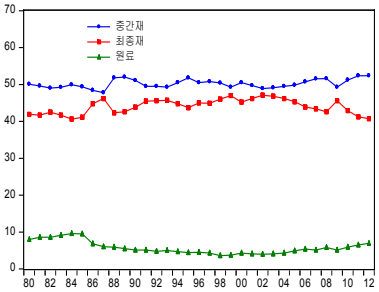
<그림9> 아세안 상품군 별 비중 추이(3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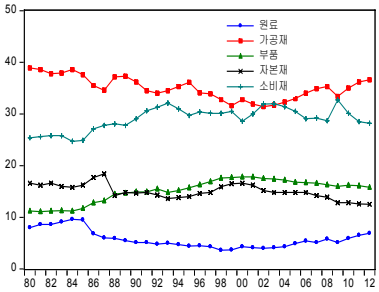
<그림10> 아세안 상품군 별 비중 추이(5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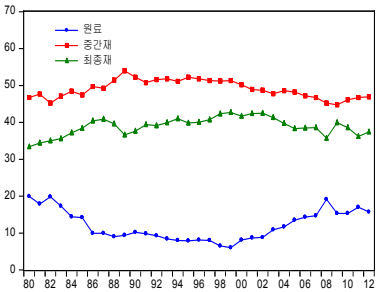
<그림11> EU 역내무역 내 비중 추이(3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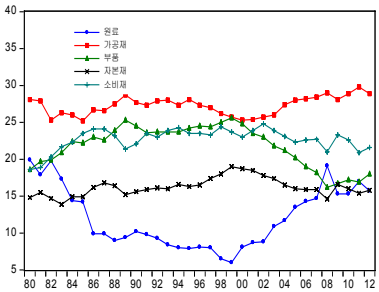
<그림12> EU 역내무역 내 비중 추이(5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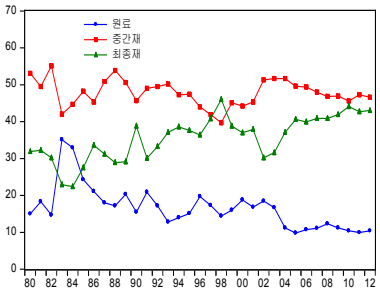
<그림13> NAFTA 역내무역 내 비중 추이(3대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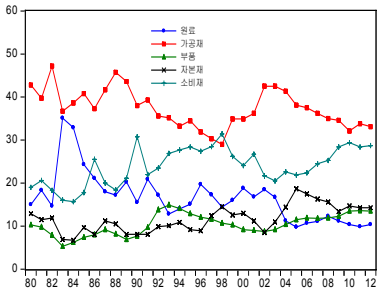
<그림14> NAFTA 역내무역 내 비중 추이(5대 분류)



<그림15> MERCOSUR 역내무역 내 비중 추이(3대 분류)



<그림16> MERCOSUR 역내무역 내 비중 추이(5대 분류)



3. 역내편향성: 역내무역집중도지수

다음으로 4개 경제통합체 역내무역의 편향성을 나타내는 역내무역집중도지수(intra-regional trade intensity index)를 살펴보면 <그림 17>와 같다. 역내무역집중도지수의 경우 MERCOSUR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아세안, NAFTA, EU 순으로 MERCOSUR가 가장 역내 편향적이고 EU가 가장 역외 편향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놀라운 결과는 아닌데 NAFTA, EU 등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세안, MERCOSUR에 비해 월등히 크기 때문에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산출식의 분모인 세계 총 무역규모 대비 무역규모 비율도 NAFTA, EU의 경우 아세안과 MERCOSUR에 비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EU, NAFTA의 총 세계무역규모 대비 무역규모는 각각 31.3%, 15.7%인데 비해 아세안, MERCOSUR의 경우 각각 7.1%, 2.2%에 불과하였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990년대 후반이후 3.5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아세안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가 2007년 3.7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2년 3.1로 하락한 반면 EU와 NAFTA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완만하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MERCOSUR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1999년 10.7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6.0까지 하락하였다. 이렇듯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EU, NAFTA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세안과 EU, NAFTA의 상반된 양상은 아세안의 역내무역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역외무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여 아세안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원료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를 보면 <그림18>과 같이 아세안은 4.0 내외에서 불안정적으로 등락하다가 2000년대 후반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3.4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EU와 NAFTA의 원료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2012년 각각 1.8, 3.4로 완만하지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ERCOSUR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1996년 5.5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1.1까지 하락하였다.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EU, NAFTA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양상은 아세안의 원료의 역내무역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산업화에 따른 역외 원료 수요의 증가로 인해 역외무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여 원료무역의 경우 아세안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중간재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를 보면 <그림19>와 같이 아세안은 4.0 내외에서 불안정적으로 등락하다가 2007년 3.4까지 상승한 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2.8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EU와 NAFTA의 원료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2012년 각각 2.0, 1.7로 완만

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MERCOSUR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1999년 9.6으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6.9까지 하락하였다. 아세안의 중간재 역내무역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유지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EU, NAFTA의 경우 중간재 역내무역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양상은 아세안의 중간재의 역내무역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산업화에 따른 역외의 중간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중간재의 역외무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여 아세안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가공재의 경우 <그림20>과 같이 아세안은 2006년 4.4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2012년 3.3을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EU는 1980년 1.3에서 2012년 2.0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NAFTA는 2000년대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1999년 2.5에서 2012년 3.1로 상승하였다. 부품의 경우에도 <그림21>과 같이 가공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아세안은 1986년 3.9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1999년 2.8까지 반등하였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 2012년 2.1을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EU는 1980년 1.4에서 2012년 2.0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NAFTA는 1984년 1.5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2.3을 기록하였다.

최종재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를 보면 <그림22>와 같이 아세안은 1980년 4.0에서 시작하여 1986년 6.3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1997년 2.8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2008년 3.7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2012년 3.2까지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EU와 NAFTA의 원료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1980년 각각 1.3, 1.8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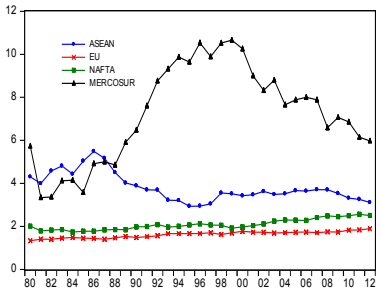
2012년 각각 1.7, 2.0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의 최종재 역내무역비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EU, NAFTA의 경우 최종재 역내무역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양상은 아세안의 최종재의 역내무역이 증가했지만 동시에 구매력 상승에 따른 역외의 최종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최종재의 역외무역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여 아세안이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최종재 중 자본재의 경우 <그림23>과 같이 아세안은 1997년 1.9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2009년 2.7까지 상승하였으나 다시 하락 2012년 2.2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EU는 1980년 1.2에서 2012년 1.8으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NAFTA는 2000년대 들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1985년 1.2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여 2012년 1.9를 기록하였다. 소비재의 경우에도 <그림24>과 같이 자본재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아세안은 1986년 6.9로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2005년 5.4까지 반등하였다가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 2012년 4.5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EU는 1980년 1.2에서 2012년 1.8로 완만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NAFTA는 1985년 1.6으로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2년 2.1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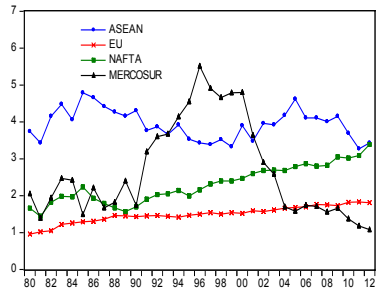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역내무역집중도지수 분석을 통해 볼 때 아세안의 역내무역규모의 증가세나 역내무역비중의 증가세는 EU, NAFTA를 압도하고 있으나, 오히려 그 편향성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의 경우 역외국과의 무역규모의 증가로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데 비해 상대적으로 역내무역비중의 증가세가 그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세안의 전체 무역 중에서 역내무역에 비해 역외무역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하고 이는 아세안이 AFTA 등 역내경제통합을 진행해 왔지만 역외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EU와 NAFTA는 세계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고 역내무역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적어 역내무역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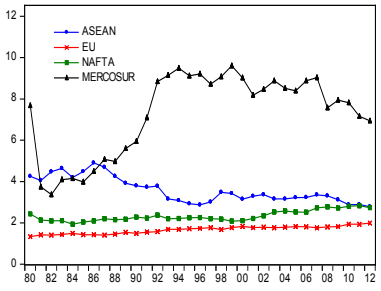
<그림17> 역내무역집중도지수(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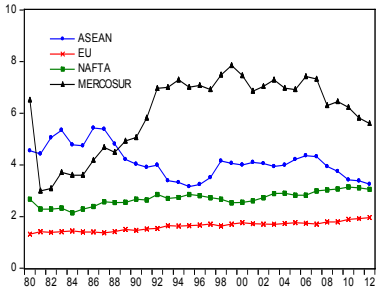
<그림18> 역내무역집중도지수(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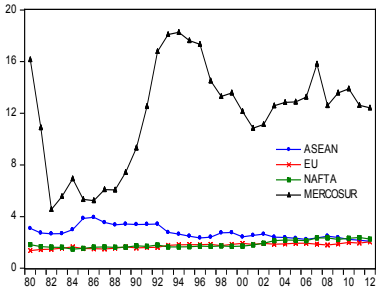
<그림19> 역내무역집중도지수(중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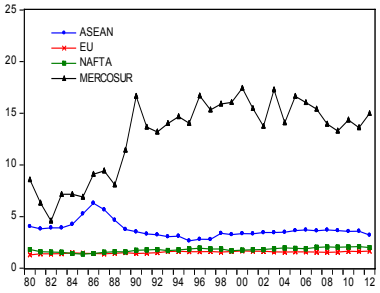
<그림20> 역내무역집중도지수(가공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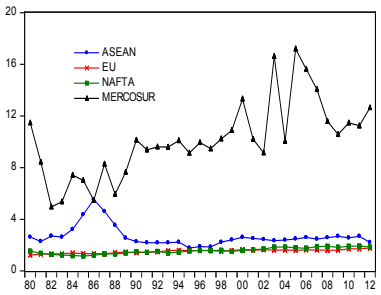
<그림21> 역내무역집중도지수(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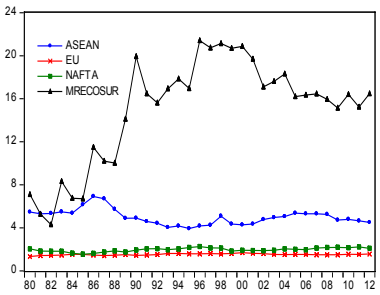
<그림22> 역내무역집중도지수(최종재)



<그림23> 역내무역집중도지수(자본재)



<그림24> 역내무역집중도지수(소비재)



4. 역내지향성: 지역무역내향성지수

다음으로 아래 <그림25>는 4개 경제공동체의 역내지향성을 나타내는 지역무역내향성지수(regional trade introversion index)를 나타낸 것이다. 지역무역내향성지수의 경우 2012년 MERCOSUR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EU, NAFTA, 아세안 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MERCOSUR가 가장 역내 지향적이고 아세안이 가장 역외 지향적임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1990년대 후반이후 0.68 내외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아세안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2007년 0.69로 고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하여 2012년 0.63으로 하

락한 반면 EU와 NAFTA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완만하지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MERCOSUR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는 1990년대 후반까지 0.88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 0.77까지 하락하였다. 이처럼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세안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MERCOSUR와 EU에 비해서는 낮고 NAFTA와는 비슷한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반해 EU, NAFTA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이 증가했지만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역내무역의 심화를 나타내는 역내지향성지수에서는 EU, NAFTA, MERCOSUR에 비해 하락하고 있다. 이는 EU, NAFTA의 역내지향성은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되는 추세인 반면 아세안은 오히려 역내지향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료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보면 <그림26>과 같이 아세안의 경우 0.7 내외로 1980년대는 가장 역내 지향적이었으나 NAFTA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급증함에 따라 1990년대 후반 NAFTA에 이어 두 번째로 역내 지향적인 것으로 보인다. EU와 NAFTA의 경우 원료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1980년 각각 −0.04, 0.38에서 1980년대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0.50, 0.78을 기록,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MERCOSUR의 원료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데 1997년 0.75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12년 0.04까지 하락하였다. 아세안의 경우 원료의 역내무역비중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2005년 0.74를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EU, NAFTA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세안의 원료 역내지향성은 NAFTA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지만 EU, NAFTA의 역내지향성은 지속되거나 더욱 강화되는 추세인 반면 아세안은 오히려 역내지향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중간재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보면 <그림27>과 같이 아세안은 1980년대는 가장 역내 지향적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1990년대 후반이후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2년 0.61로 4개 경제공동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EU와 NAFTA의 중간재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1980년 각각 0.67, 0.68에서 시작하여 1980년대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0.79, 0.71을 기록하였다. 한편 MERCOSUR의 중간재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1980년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1990년 이후 0.8 이상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의 중간재의 역내무역비중은 4개 경제통합체 중 가장 높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2008년 0.68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U, NAFTA의 경우 중간재의 역내무역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 EU, NAFTA의 중간재의 역내지향성은 강화되는 추세인 반면 아세안의 중간재의 역내지향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세안의 중간재의 역내무역비중의 증가가 역내지향성의 증가를 담보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28>, <그림29>의 가공재와 부품의 경우에도 아세안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의 가공재 및 부품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2008년 이후 뚜렷한 감소

세를 보이는 반면 EU, NAFTA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MERCOSUR의 가공재 및 부품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1980년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1990년 이후에도 가공재 0.8 및 부품 0.9 내외로 경제통합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가공재의 경우 2008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부품의 경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EU, NAFTA, MERCOSUR의 경우 모두 역내지향성이 강화 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에 비해 아세안의 경우는 역내지향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의 가공재 및 부품의 역내무역비중의 증가가 역내지향성의 증가를 담보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최종재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보면 <그림30>과 같이 아세안은 1980년대는 MERCOSUR 다음으로 가장 역내 지향적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하락하였고 1990년대 후반 이후 다소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 다시 하락하여 2012년 0.62로 4개 경제공동체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EU와 NAFTA의 최종재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1980년 각각 0.61, 0.47에서 시작하여 NAFTA가 1980년대 등락하는 모습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완만하지만 꾸준히 증가 또는 안정세를 유지하여 2012년 0.79, 0.71을 기록하였다. 한편 MERCOSUR의 최종재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1980년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1990년 이후 0.8 이상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세안의 최종재 역내무역비중은 4개 경제통합체 중 가장 높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2008년 0.68을 기록한 후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EU, NAFTA의 경우 최종재의 역내무역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U, NAFTA의 최종재의 역내지향성은 강화되는 추세인 반면 아세안의 최종재의 역내지향성이 약화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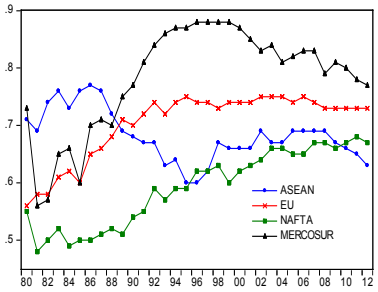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아세안의 최종재의 역내무역비중의 증가가 역내지향성의 증가를 담보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그림31>, <그림32>와 같이 자본재와 소비재의 경우에도 아세안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세안의 자본재 및 소비재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2008년 이후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EU, NAFTA의 경우 오히려 증가하는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MERCOSUR의 자본재 및 소비재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1980년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1990년 이후에도 자본재 0.8 및 소비재 0.9 내외로 경제통합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종재의 경우 2008년 이후 소폭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소비재의 경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EU, NAFTA, MERCOSUR의 경우 모두 역내지향성이 강화 또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데에 비해 아세안의 경우는 역내지향성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의 자본재 및 소비재의 역내무역비중의 증가가 역내지향성의 증가를 담보하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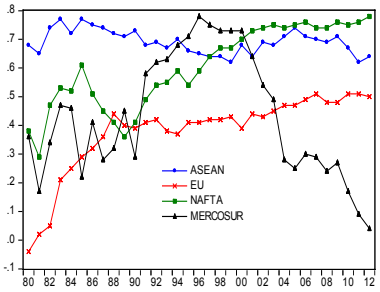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전반적으로 보면 아세안에 비해 EU, NAFTA가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향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세안의 경우 역내무역집중도지수의 분석에서와 같이 역내무역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내향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간재의 경우 아세안은 원료와 최종재에 비해서는 높은 내향성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그 수준이 낮은 상황이고, 부품 보다는 가공재의 내향성이 더 높아 가공무역 위주의 생산방식이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종재의 경우 낮은 역내무역비중 만큼이나 내향성이 EU, NAFTA 등 타 경제권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종합해 볼 때, 아세안의의 역내무역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역내국 간 중간재 위

주의 무역을 통한 가공생산 후 역외로 수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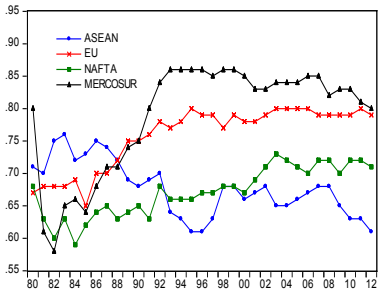
<그림25> 지역무역내향성지수(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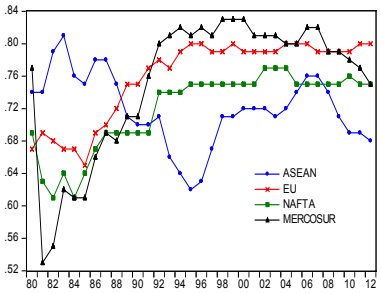
<그림26> 지역무역내향성지수(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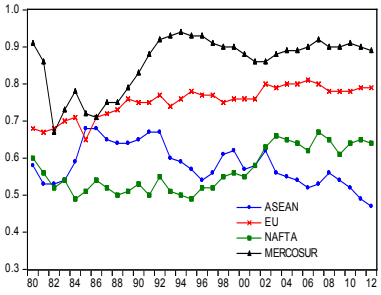
<그림27> 지역무역내향성지수(중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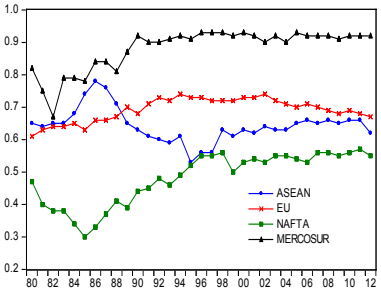
<그림28>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공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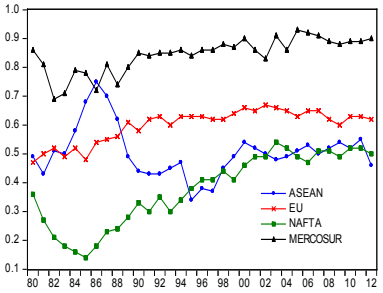
<그림29> 지역무역내향성지수(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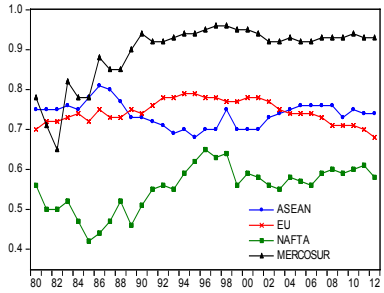
<그림30> 지역무역내향성지수(최종재)



<그림31> 지역무역내향성지수(자본재)



<그림32> 지역무역내향성지수(소비재)



Ⅳ. 시계열 및 상관관계 분석

1. 시계열 분석

본 절에서는 위에선 살펴본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가 및 감소 등의 변화를 좀 더 객관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시계열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식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종속변수로, 시간(T)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시간(T)가 종속변수인 각 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Y_T = C + aT + \varepsilon_T \qquad (4)$$

Y_T는 T기의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의미하고 a는 시간(T)의 계수이다. $a > 0$ 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속변수인 Y가 증가함을, 반대로 $a < 0$ 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종속변수인 *Y*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계수 *a*의 부호와 그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함으로써 아세안 역내무역에 있어 역내무역비중의 증가와 함께 역내무역집중도지수 및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감소하는 이중적 현상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래 <표2>~<표4>는 위에서 언급한 계수 *a*의 값 및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 것이다.

우선 <표2>는 역내무역비중과 관련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수 *a*값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세안의 경우 모든 상품군에서 계수 *a*값이 양수(+)이고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EU 및 NAFTA의 경우 모든 상품군에서 계수 *a*값이 음수(−)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EU 및 NAFTA의 역내무역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MERCOSUR의 경우 모든 상품군에서 계수 *a*값이 양수(+)이고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MERCOSUR의 역내무역비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표3>은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관련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수 *a*값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역내무역비중의 경우와는 반대로 아세안의 경우 모든 상품군에서 계수 *a*값이 음수(−)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EU, NAFTA 및 MERCOSUR의 경우 모든 상품군에서 계수 *a*값이 양수(+)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EU, NAFTA 및 MERCOSUR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4>는 지역무역내향성지수와 관련하여 시간의 흐

름에 따른 계수 *a*값과 그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도 위에서 살펴본 역내무역비중의 경우와는 반대로 아세안의 경우 모든 상품군에서 계수 *a*값이 음수(−)이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반해 EU, NAFTA 및 MERCOSUR의 경우 모든 상품군에서 계수 *a*값이 양수(+)이고 또한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EU, NAFTA 및 MERCOSUR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도 아세안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은 증가하는 추세가 있지만 이와는 반대로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세안 역내무역의 양적 확대가 역내경제통합의 실제적 진전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아세안의 역내무역에서의 특성은 역내무역비중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역내무역집중도

<표2> 역내무역비중 관련 α값 및 통계적 유의성

	아세안	EU	NAFTA	MERCOSUR
전체	0.121^{***} (0.023)	-0.039^{***} (0.043)	0.180^{***} (0.047)	0.284^{***} (0.065)
원료	-0.177^{***} (0.036)	0.013 (0.071)	0.578^{***} (0.060)	0.036 (0.090)
중간재	0.185^{***} (0.027)	-0.108^{***} (0.029)	0.021 (0.049)	0.286^{***} (0.047)
(가공재)	0.140^{***} (0.048)	-0.100^{***} (0.030)	0.195^{***} (0.057)	0.271^{***} (0.045)
(부품)	0.339^{***} (0.053)	-0.092^{**} (0.038)	-0.242^{***} (0.044)	0.331^{***} (0.078)
최종재	0.178^{***} (0.018)	-0.136^{***} (0.032)	0.178^{***} (0.050)	0.532^{***} (0.067)
(자본재)	0.231^{***} (0.030)	-0.198^{***} (0.039)	0.274^{***} (0.055)	0.467^{***} (0.045)
(소비재)	0.143^{***} (0.017)	-0.139^{***} (0.028)	0.091^{*} (0.051)	0.583^{***} (0.099)

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증가하고 있는 EU, NAFTA, MERCOSUR의 경우와는 다른 모습이다. 실제적인 경제통합이 진행되기 위한 역내무역구조의 변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3> 역내무역집중도지수 관련 α값 및 통계적 유의성

	아세안	EU	NAFTA	MERCOSUR
전체	−0.045*** (0.009)	0.014*** (0.001)	0.023*** (0.002)	0.113*** (0.034)
원료	−0.013* (0.007)	0.022*** (0.001)	0.049*** (0.003)	−0.011 (0.024)
중간재	−0.052*** (0.006)	0.018*** (0.001)	0.021*** (0.003)	0.132*** (0.028)
(가공재)	−0.040*** (0.009)	0.017*** (0.001)	0.023*** (0.003)	0.098*** (0.021)
(부품)	−0.038*** (0.007)	0.018*** (0.001)	0.025*** (0.003)	0.192*** (0.067)
최종재	−0.035** (0.013)	0.008*** (0.001)	0.017*** (0.002)	0.283*** (0.046)
(자본재)	−0.028* (0.014)	0.013*** (0.001)	0.022*** (0.002)	0.215*** (0.040)
(소비재)	−0.029** (0.012)	0.004*** (0.001)	0.012*** (0.003)	0.338*** (0.069)

<표4> 지역무역내향성지수 관련 α값 및 통계적 유의성

	아세안	EU	NAFTA	MERCOSUR
전체	−0.002*** (0.001)	0.005*** (0.001)	0.006*** (0.000)	0.006*** (0.001)
원료	−0.002** (0.001)	0.012*** (0.001)	0.013*** (0.001)	−0.004 (0.004)
중간재	−0.003*** (0.001)	0.004*** (0.000)	0.003*** (0.000)	0.006*** (0.001)
(가공재)	−0.002* (0.001)	0.004*** (0.000)	0.004*** (0.000)	0.006*** (0.001)
(부품)	−0.003*** (0.001)	0.004*** (0.000)	0.005*** (0.001)	0.005*** (0.001)
최종재	−0.001 (0.001)	0.002*** (0.001)	0.007*** (0.001)	0.005*** (0.001)
(자본재)	−0.001 (0.002)	0.005*** (0.001)	0.012*** (0.001)	0.005*** (0.001)
(소비재)	−0.001 (0.001)	−0.000 (0.001)	0.004*** (0.001)	0.006*** (0.001)

2. 상관관계 분석

위에서는 시계열분석을 통해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 등 각 지수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증가 및 감소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와 EU, NAFTA, MERCOSUR의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와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아세안 역내무역과 여타 경제통합체의 역내무역 간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표5>는 역내무역비중의 아세안과 여타 경제통합체 간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EU와는 음(−)의 상관계수를 NAFTA와 MERCOSUR와는 양(+)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은 EU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지임을, NAFTA와 MERCOSUR와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6>는 역내무역집중도지수의 아세안과 여타 경제통합체 간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는 EU, NAFTA, MERCOSUR 모두와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세안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가 이들 경제통합체들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7>은 지역무역내향성지수의 아세안과 여타 경제통합체 간 상관계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 경우에도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같이 EU, NAFTA, MERCOSUR 모두와 음(−)의 상관계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아세안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이들 경제통합체들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5> 아세안과 여타 경제통합체의 역내무역비중의 상관계수

	전체	원료	중간재	(가공재)	(부품)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EU	−0.49	−0.06	−0.62	−0.71	−0.39	−0.60	−0.63	−0.66
NAFTA	0.49	−0.50	0.19	−0.16	−0.44	0.57	0.70	0.19
MERCOSUR	0.36	−0.36	0.58	0.02	0.67	0.85	0.73	0.74

<표6> 아세안과 여타 경제통합체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의 상관계수

	전체	원료	중간재	(가공재)	(부품)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EU	−0.78	−0.19	−0.91	−0.73	−0.78	−0.61	−0.46	−0.63
NAFTA	−0.60	−0.19	−0.57	−0.69	−0.64	−0.63	−0.46	−0.60
MERCOSUR	−0.76	−0.47	−0.80	−0.63	−0.51	−0.62	−0.40	−0.64

<표7> 아세안과 여타 경제통합체의 지역무역내향성지수의 상관계수

	전체	원료	중간재	(가공재)	(부품)	최종재	(자본재)	(소비재)
EU	−0.70	−0.24	−0.81	−0.64	−0.36	−0.60	−0.37	−0.63
NAFTA	−0.60	−0.27	−0.61	−0.60	−0.57	−0.58	−0.37	−0.56
MERCOSUR	−0.75	−0.30	−0.77	−0.58	−0.36	−0.45	−0.37	−0.45

다음으로 <표8>은 역내무역비중과 역내무역집중도지수 간의 상관계수를, <표9>는 역내무역비중과 지역무역내향성지수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아세안의 경우 두 경우 모두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역내무역비중의 증가와 역내무역집중도지수 및 지역무역내향성지수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U의 경우에도 두 경우 모두 음(−)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아세안과는 반대로 역내무역비중의 감소와 역내무역집중도지수 및 지역무역내향성지수의 증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NAFTA와 MERCOSUR의 경우 두 경우 모두 양(+)의 상관계수를 나타내는데 이는 역내무역비중의 증가와 더불어 역내무역집중도지수 및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동반 증가하는 것이 반영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상관계수의 분석을 통해 아세안의 역내무역비중의 증가가 역내무역집중도지수 및 지역무역내향성지수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양적 차원의 역내무역확대가 역내무역의 실질적 심화를 가져오는 충분조건이 되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8> 역내무역비중과 역내무역집중도지수의 상관계수

	아세안	EU	NAFTA	MERCOSUR
전체	−0.33	−0.20	0.26	0.92
연료	0.71	0.29	0.90	0.97
중간재	−0.60	−0.63	−0.37	0.91
(가공재)	0.12	−0.56	0.31	0.91
(부품)	−0.50	−0.59	−0.69	0.89
최종재	−0.36	−0.57	0.40	0.84
(자본재)	−0.17	−0.70	0.63	0.80
(소비재)	−0.32	−0.30	0.14	0.87

<표9> 역내무역비중과 지역무역내향성지수의 상관계수

	아세안	EU	NAFTA	MERCOSUR
전체	−0.13	−0.38	0.63	0.91
연료	0.85	0.59	0.97	0.92
중간재	−0.40	−0.22	0.17	0.92
(가공재)	0.46	−0.07	0.78	0.92
(부품)	−0.11	−0.12	−0.39	0.86
최종재	−0.22	0.04	0.66	0.86
(자본재)	−0.04	−0.31	−0.79	0.86
(소비재)	−0.09	−0.47	0.51	0.85

3. 시사점

아세안의 역내무역은 그 물량과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중간재 중심의 역내무역구조를 보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12년 기준 아세안의 역내무역 중 56.9%가 중간재에 편중되어 있는 반면 최종재 및 원료의 비중은 각각 28.2%, 10.0% 그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물량과 비중에도 불구하고 무역의 내향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역내무역의 역내외 편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분석한 결과 아세안 역

내무역의 경우 2000년대 중후반 이후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원료를 제외하면 중간재, 최종재 모두에서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하락하는 추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아세안 역내무역의 내향성이 낮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아세안의 대 역외무역 규모와 비중이 역내무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되었다. 아세안 역내무역의 확대가 지역내향성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으나, 동시에 역외무역이 더 많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 전체의 역내무역 내향성이 낮아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둘째, 아세안 역내무역이 주로 중간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2년 아세안 역내무역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6.9%에 달했지만 원료는 15%, 최종재는 28.2%에 그쳤다. 이는 역내 분업구조를 통해 중간재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종재의 수요지는 여전히 역외임을 의미한다. 더구나 역내무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간재의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도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중간재 무역 위주의 양적 성장으로는 역내경제통합의 실제적 효과는 한계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구분해 보면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는 쌍봉형 형태를 보이는데 역내편향성과 지향성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증가하다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하지만 AFTA 형성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2000년대 중반 고점을 기록한 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하락추세는 최근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2000년대 후반까지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AFTA형성 이후 관세인

하, 철폐 등 경제통합의 효과로 인한 역내시장의 확대와 역내무역자유화의 진전에 따른 역내산업생산의 분업화가 심화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역내무역비중은 증가하지만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AFTA로 대표되는 아세안의 경제통합의 효과가 일정부분 소진되거나 한계에 다다랐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은 약화되고 있는 역내무역의 편향성과 내향성을 다시 재고시킬 수 있는 계기와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세안의 품목별 역내무역 분석을 통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중간재의 경우 가공재의 역내무역비중, 역내편향성, 역내지향성이 부품보다는 높고 또한 최종재의 경우에는 소비재의 역내무역비중, 역내편향성, 역내지향성이 자본재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품 및 자본재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이 낮고 역내에 대한 편향성, 지향성이 약하다는 다시 말해 동 품목에 있어서는 아세안이 역외국가들로부터의 공급에 보다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공재 및 소비재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이 높고 역내에 대한 편향성,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동 품목에 대한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역내로의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개척 및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품목의 비중을 보면 소비재의 역내무역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중산층의 소비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소비재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저가의 소비재 수출품은 중국, 아세안 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현지 생산 및 직접투자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수출은 중산층이 소비하는 중고가 상품을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등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역내무역

의 흐름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상품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아세안은 무역자유화와 수출지향형 성정전략을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어왔다. 더욱이 1993년 역내자유무역협정인 AFTA의 출범 및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 한국, 인도, EU 등 주요 역외 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이 가속화됨에 따라 역내무역의 규모 및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다. 아세안의 역내무역 규모는 22배로 급격하게 증가했고 역내무역비중도 동 기간 15.7%에서 22.5%까지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EU, NAFTA에 비해 비약적 성장이라 할 수 있고 MERCOSUR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내무역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역내무역은 실제적인 역내경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역내무역 규모와 비중의 증가가 양적 성장이라면 역내무역의 지역편향성, 내향성 수준은 역내무역의 질적 성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편향성, 내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동 지수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아세안 역내무역은 EU, NAFTA에 비해서도 낮고 개도국들의 경제통합체인 MERCOSUR에 비해서도 내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EU, NAFTA의 내향성이 높아진 데 반해 아세안의 내향성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위에서 보았듯이 아세안의 역내무역은 역내무역집중도지수 분석

에서 본 바와 같이 역내무역의 규모 및 비중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2000년대 후반 이후 현재까지 역내무역집중도지수 및 지역무역내향성지수가 하락하는 등 약한 역내지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시기별로 보면 아세안의 역내무역은 1980년대 중반 가장 높은 역내지향성을 보이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AFTA의 출범 이후 역내지향성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다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본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같이 두 번의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종합해 볼 때 아세안의 역내무역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호 중간재 위주로 무역을 해 가공한 후 역외로 수출하는 중간재 중심의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AFTA형성 이후 역내무역의 역내편향성 및 역내지향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다시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무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 또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무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및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이 아세안 역내무역의 실제적인 발전 및 심화를 위한 계기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내무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무역질서 및 규범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무역자유화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중간재 중심의 무역자유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까지 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내무역자유화 심화를 통해 역내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면

역내시장의 확대를 기반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성공적 실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은 아세안의 역내무역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기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역내무역의 실제적 발전과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역내무역질서 및 규범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역내무역자유화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중간재 중심의 무역자유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까지 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내무역자유화 심화를 통해 역내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면 역내시장의 확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의 이러한 역내무역 구조 및 특성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고 향후 아세안의 경제성장 속도와 역내 경제통합 추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아세안의 역내 소비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을 개발, 수출할 뿐만 아니라 역내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투자의 확대, 생산의 분업화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세안의 품목별 역내무역 분석을 통해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중간재의 경우 가공재의 역내무역비중, 역내편향성, 역내지향성이 부품보다는 높고 또한 최종재의 경우에는 소비재의 역내무역비중, 역내편향성, 역내지향성이 자본재보다 높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품 및 자본재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이 낮고 역내에 대한 편향성, 지향성이 약하다는 다시 말해 동 품목에 있어서는 아세안이 역외시장의 공급에 보다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 품목에 대한 수출경쟁력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가공재

및 소비재의 경우 역내무역비중이 높고 역내에 대한 편향성, 지향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동 품목에 대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역내로의 직접투자를 통한 시장개척 및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품목의 비중을 보면 소비재의 역내무역비중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아세안 중산층의 소비재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소비재 시장에 대한 전략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생산하는 저가의 소비재 수출품은 중국, 아세안 상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므로 현지 생산 및 직접투자 등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수출은 중산층이 소비하는 중고가 상품을 중심으로 차별화하는 등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역내무역의 흐름을 고려한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제품 개발에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최대 5개 상품군을 가지고 아세안 전체적 차원의 역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향후 연구과제로는 아세안의 개별 국가들에 대한 분석, 아세안 개별국가들의 역내무역에 있어서의 역할과 입지, 보다 다양한 상품군으로의 분류 및 이에 맞춘 역내무역의 분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세안역내무역,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 EU, NAFTA, MERCOSUR

〈참고문헌〉

고종환. 2007. “한-ASEAN 상품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국제지역연구』, 제 11권 제 3호, pp.387-417.

권율. 2006. “ASEAN-인도 자유무역지대 추진현황과 전망.”『동남아시아연구』, 제 16권 제 2호, pp.29-65.

권율·정인교·박인원. 2003.『ASEAN 경제통합의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완중. 2009. “ASEAN 역내경제협력 효과 분석: 역내무역을 중심으로.”『동남아시아연구』, 제 19권 제 3호, pp.221-260.

김준협. 2011. “아세안+3 지역 경제통합의 조건과 발전 과정.”『동남아시아연구』, 제 21권 제3호, pp.205-243.

나희량. 2014. “동남아시아 역내교역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동남아시아연구』, 제 24권 제 2호, pp.35-79.

_____. 2009. “중국-ASEAN 간 경제통합: FTA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국제·지역연구』, 제 18권 제 1호, pp.67-95.

박노호. 1996. “지역학과 경제학.”『지역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지역학연구회 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p.77-98.

박번순. 2013. “아세안 경제협력의 진화와 평가.”『동남아시아연구』, 제 23권 제 2호, pp.1-33.

_____. 2011. “한국의 동남아경제 연구.”『아시아리뷰』, 창간호, pp.227-258.

박번순·김경훈. 2012. “아세안경제공동체 추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SERI연구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박인원. 1998. “AFTA, Is it Sufficient for ASEAN’s Further Economic Growth?.”『1998년도 한국국제경제학회 동계학술

대회발표 논문집』: pp.703-728.

양평섭. 1994.『아세안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교통상부. 2013.『2013 외국의 통상환경』.

원용걸. 2010. “수출주도 경제성장 혹은 수입주도 경제성장: ASEAN 주요국의 경우.”『동남아시아연구』, 제 20권 제 1호, pp.41-70.

_____. 2002. “ASEAN 주요국의 교역장벽 연구.”『동남아시아연구』 제 12권 제 2호, pp.29-62.

_____. 1996.『ASEAN 자유무역지대(AFTA)의 전개과정과 그 시사점』.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재원. 1996. “아세안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지대의 역할.”『비교경제연구』 제 4권 pp.95-140.

이충열. 2014.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의미와 미래: 성공 혹은 실패?.”『2014년 한국동남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충열·이종하. 2012. “동아시아 국가의 환율변동 요인 분석.”『동남아시아연구』, 제 22권 제 3호, pp.1-37.

ASEAN Secretariat. 2008.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ASEAN.

Athukorala, Prema-chandra. 2005. "Liberalization Process, Structure of Protection, and Reform Agenda."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2, No. 1, pp.19-34.

Austria, S. Myrna. 2012. “Moving Towards an ASEAN Economic Community”, *East Asia* Vol.29, pp141-156.

Chia, Y. Siow. 2013.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Progress, Challenges, and Prospects”, *ADBI Working Paper Series.*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Chirathivat, Suthiphand. 1991. "Managing Thai Trade Policy to Better

Access Developed Countries' Markets." *ASEAN Economic Bulletin* Vol. 8, No. 1, pp.66-86.

Das, B. Sanchita. 2012. *Achieving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2015: Challenges for Member Countries & Business.* ISEAS. Singapore.

Das, B. Sanchita *et all*. 2013a. *ASEAN Economic Community Scorecard: Performance and Perception.* ISEAS. Singapore.

Das, B. Sanchita *et all*. 2013b.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A Work in Progress.* ISEAS. Singapore.

Dennis, Allen and Ben Shepherd. 2007. "Trade Costs, Barriers to Entry, and Export Diversific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4368. The World Bank.

DeRosa, D. A. 1986. "ASEAN-U.S. Trade Relations." *ASEAN Economic Bulletin,* Vol.3, No 2, pp.169-188.

Francois, Joseph and Miriam Manchin. 2007. "Institutions, Infrastructure, and Trade."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No. 4152. The World Bank.

Hertel, Thomas W., and Roman Keeney, 2005, "What's at Stake: The Relative Importance of Import Barriers, Export Subsidies, and Domestic Support" in Kym Anderson and Will Martin (eds.) *Agricultural Trade Reform and the Doha Development Agenda*,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James, William. E. 1998. "Trade and Financial Market Reforms in ASEAN." *ASEAN Economic Bulletin,* Vol.14 No. 3, pp.224-237.

Koh, A. 2004. "A Trade Policy Agenda for Shared Growth."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1, No. 3, pp.338-339.

Kubo, K. 2012. "Trade Policies and Trade Misreporting in Myanmar."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9, No. 2, pp.146-159.

Langhammer, R. 1985. "The Economic Rationale of Trade Policy Co-operation between ASEAN and the EC." *ASEAN Economic Bulletin,* Vol., No. 2, pp.107-117.

Liang, M. 2005. "Singapore's Trade Policies."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2, No. 1, pp.49-59.

Lutkenhorst, W. 1984. "Import Restrictions and Export Promotion Measures in Southeast Asian Countries." *ASEAN Economic Bulletin,* Vol. 1, No. 1, pp.43-69.

Naya, Seiji. and Ulrich Hiemenz. 1985. "Changing Trade Patterns and Policy Issues."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 No. 2. pp.83-100.

Nguyen, T. 2009. "Gravity Model by Panel Data Approach."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6, No. 3, pp.266-277.

Petri, A. Peter, Plummer G. Michael, and Zhai, Fan. 2012. "ASEAN Economic Community: A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Asian Economic Journal.* Vol.26, No.2, pp93-118.

Sally, Razeen. and Sen Rahul. 2005. "Revisiting Trade Policies in Southeast Asia"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2, No. 1, pp.1-2.

Sally, Razeen. and Sen Rahul. 2005. "Whither Trade Policies in Southeast Asia?"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2, No. 1, pp.92-115.

Sen, Razeen. and Sadhana Srivastava. 2009. "ASEAN's Bilateral Preferenti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6, No. 2, pp.194-214.

Soesastro, Hadi and Chatib M. Basri. 2005.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in Indonesia."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2, No. 1, pp.3-18.

Talerngsri, Pawin and Pimchanok Vonkhorporn. 2005. "Trade Policy in Thailand."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2, No. 1, pp.60-74.

Tongzon, Jose L. 2005. "Trade Policy in the Philippines."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2, No. 1, pp.35-48.

Vo, Tri T. 2005. "Vietnam's Trade Liberalization and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2, No. 1, pp.75-91.

Warr, Peter. 2011. "Trade Policy and the Structure of Incentives in Thai Agriculture."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8, No. 2, pp.160-182.

Widodo, Tri. 2008. "The Structure of Protection in Indonesian Manufacturing Sector." *ASEAN Economic Bulletin,* Vol. 25, No. 2, pp.161-178.

ASEAN Secretariat webpage: www.asean.org

Research Institute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RIETI) TID(Trade Industry Data Base) webpage: http://www.rieti-tid.com/

(2014.10.18투고, 2014.11.26심사; 2014.12.17게재확정)

<국문초록>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에 따른 아세안 역내무역 분석 및 시사점: EU, NAFTA, MERCOSUR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나 희 량
(부경대학교)

아세안은 역내무역의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세안의 역내무역은 실제적인 역내경제의 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역내무역 규모와 비중의 증가가 양적 성장이라면 역내무역의 지역편향성, 내향성 수준은 역내무역의 질적 성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편향성, 내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동 지수를 분석한 결과 동아시아 아세안 역내무역은 EU, NAFTA에 비해서도 낮고 개도국들의 경제통합체인 MERCOSUR에 비해서도 내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EU, NAFTA의 내향성이 높아진 데 반해 아세안의 내향성은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다. 역내무역집중도지수와 지역무역내향성지수를 종합해 볼 때 아세안의 역내무역은 외형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호 중간재 위주로 무역을 해 가공한 후 역외로 수출하는 중간재 중심의 무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AFTA형성 이후 역내무역의 역내편향성 및 역내지향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2000년대 중후반 이후 다시 약화되는 모습을 보여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무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기 또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5년 아세안경제공동체 출범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으로 인한 역내무역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및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이 아세안 역내무역의 실제적인 발전 및 심화를 위한 계기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역내무역의 발전을 위해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무역질서 및 규범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무역자유화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중간재 중심의 무역자유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까지 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내무역자유화 심화를 통해 역내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면 역내시장의 확대를 기반으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성공적 실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세안경제공동체의 출범은 아세안의 역내무역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계기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역내무역의 실제적 발전과 보다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역내경제통합을 위한 역내무역질서 및 규범을 마련하고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노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역내무역자유화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중간재 중심의 무역자유화에 그치지 않고 소비재를 포함한 최종재까지 자유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내무역자유화 심화를 통해 역내무역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면 역내시장의 확대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아세안역내무역, 역내무역비중, 역내무역집중도지수, 지역무역내향성지수, EU, NAFTA, MERCOSUR

<Abstract>

Trends and Issues of ASEAN Intra-Regional Trade ahead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Comparative Study with EU, NAFTA, and MERCOSUR

RA Hee Ryang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and issues of intra-regional trade of ASEAN ahded of ASEAN Economic Community in 2015. For comparative study we examine the cases of EU, NAFTA, and MERCOSUR as well. ASEAN has achieved th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rade liberalization and export-oriented strategy. Furthermore, intra-regional trade of ASEAN has been accelerated along with the launch of a regional free trade agreement AFTA in 1993, and free trade agreement(FTA) with China, Korea, Japan, India, and EU since the mid-2000s. For example, ASEAN's trade volume has increased sharply and the intra-regional trade share has increased gradually during last 30 years (1980～2012).

However, the quantitative growth like increase in the scale and share is not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improvement of level of trade of qualitative growth. For ASEAN, intra-regional trade intensity index and regional trade introversion index have decreased in spite of the increase of

the volume and share of intra-regional trade. On the contrary for EU, NAFTA, MERCOSUR, the intra-regional trade intensity index and regional trade introversion index have increased gradually meaning of the advance of intra-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these economic area.

In particular, in order to successful launch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by 2015 the strengthening of the linkage of production line and supply chain among ASEAN countries are necessary. Therefore, for the development of more comprehensive intra-regional trade development and a high level of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the liberalization of intra-regional trade should be advanced and the orders and norms for the trade need to be sought. In addition, intra-regional trade needs to be oriented toward final goods, especially consumer goods. The deepening intra-regional trade with a quantitative growth of trade in the region would be the one of the essential factors for the successful realization of the ASEAN Economic Community.

Key words: intra-regional trade of ASEAN, intra-regional trade share, intra-regional trade intensity index, regional trade introversion index, EU, NAFTA, MERCOSUR